세수 48조 더 걷혔어도 나라살림 86조 적자

기재부 '10월 재정동향' 발표…국가채무 1천38조
세외수입 전년동기比 1조5천억↑·기금수입 2조↓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금이 48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6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는 1천38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월 재정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6천억원으로 1년 새 48조2천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천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32조5천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7조7천억원 더 걷힌 결과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9.7%까지 올라왔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한 25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원 감소한 156조5천억원이었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71조5천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은 26조1천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여파로 기금 지출도 36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8조7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38조2천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 일정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정원주 중흥 부회장, 주택건설협회장 당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제13대 중앙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200여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단독출마한 정 부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회원사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수희 기자

광주상의, 위기 대응 지원 성과보고회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지역기업 경영·고용 위기 선제대응 지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일자리창출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 대표 및 경영분야별 전문가, 광주시·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수희 기자

북광주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6천억 달성탑

농협광주본부는 15일 "북광주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6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달성탑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의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여수신 부문별 수여 기준에 부합하는 농·축협에 시상하는 제도다.

북광주농협은 지난 2020년 7월 예수금 5천억원 달성에 이어 2년 만에 예수금 6천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상봉 조합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한걸음 더 도약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한전KPS, '지역사회공헌' 복지부장관상

한전KPS는 지난 14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올해 심사에서 한전KPS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등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KPS는 지난 2009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14년 연속 회사의 업(業)과 연계한 '희망터전 만들기' 사업을 펼쳐 저소득 아동 가정에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진단 및 맞춤형 개보수를 지원해왔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해 기업이익 사회환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한마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노후보일러 교체 사업 '온기Dream', 사회복지시설 '빛나눔 태양광 패널' 설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수희 기자

코스피, '매파' 연준에 1.60% 급락 15일 마감한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에 반응해 2,360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28포인트(1.60%) 내린 2,360.97로 장을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광주은행-전남개발공사 '車경주장 활성화' 협약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개발공사와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발전을 위해 3천만원을 후원했다.

또한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로서 한해 평균 10만여명이 방문하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상호 협력키로 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속적인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성화에 힘써 지역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광주은행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은행 염규송 부행장은 "국내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자동차경주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민의 공공체육시설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광주신세계서 '윈·윈터 페스티벌'

우수 소공인·소기업 12개사 참여…1층 이벤트홀서 18-2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 오는 18-21일 4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in 광주'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지역 우수 소상공인·소기업 12개로, 김스낵, 계란과자, 오란다 등 맛있는 간식부터 생화 케이크, 식물 트리 등 눈이 즐거운 인테리어 소품까지 판매, 풍성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소상공인과 구매 고객 모두 연말기간 '나눔'을 통해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판매전 수익의 일부를 아동결연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본 판매전 구매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만원의 행복권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제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윈·윈터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인증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2억8천5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지역 내 16개 전통시장·상점가도 윈·윈터 페스티벌에 동참,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이달 한 달 동안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온라인쇼핑몰 '롯데ON'에서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기획전도 21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롯데ON 검색창에서 '광주 전남 제주 소상공인'을 검색하면 해당 판매전을 확인할 수 있다.

윈·윈터 페스티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